

제주, 푸른 밤바다

장임혜경

예멘은 아라비카 커피, 향신료 무역지로서 15세기 이래 이권을 노린 열강들의 싸움터였다. 19세기에 영국이 남쪽을, 오스만 제국이 북쪽을 점령했고 1960년대 남예멘과 북예멘으로 갈라져 독립했다. 1970년대 세 번의 남북전쟁을 치루고 1990년에 합의로 통일하였지만, 권력배분을 둘러싼 의견충돌은 해소되지 않아 1994년에 남예멘과 북예멘이 다시 전쟁했다.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를 점령했다.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팔레스타인 등이 이들을 지원했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 연합군이 온 나라에 미국산 미사일을 퍼부으면서 내전은 격화됐다.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이스라엘 등이 무기와 정보를 팔면서 연합군을 지원했다.

마을과 병원, 학교, 모든 사회 기반이 파괴됐고 전기도 물도 부족했다. 구호품 이동이 봉쇄되면서 예멘인구 이천팔백만 명 가운데 절반이 먹지 못했다. 다섯 살 미만 어린이 팔만 오천여 명이 굶어 죽었다. 오염된 물을 마셔 콜레라와 뎅기열이 창궐하고 이를 치료할 의약품이 없었다. 삼년 동안 만 명 넘게 사망했고, 이십팔만여 명이 국경을 넘었다. 이웃인 오만, 사우디, 소말리아, 지부티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흩어졌다.

2018년 피난민 이삼백만 명 중에 오백여 명이 한국 제주도로 왔다.

1

나의 신부, 나의 파티마,

앗살라무 알라이 쿨(신의 가호를). 당신은 무사한가. 심장병은 어때? 치료는 받아? 병원이 다 무너졌을 텐데 걱정돼. 먹는 것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좀 움직이셔? 설마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을 후티 반군이 어쩌지는 않았지? 사나의 통신이 회복되면 바로 연락해 줘. 휴대폰 화면의 철책 같은 어둠을 몰아내 줘.

여기는 한국, 제주라는 섬이야. 난민 신청을 했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게 되리라는 기대에 마음이 부풀어. 바깥출입을 삼가고 있어. 난민 심사를 앞두고 흑시라도 좋지 않은 일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라마단 기간이라 낮에는 금식을 했어. 당신과 고향 생각이 많이 났어.

사나의 시가지, 우리가 만나고 사랑을 나눴던 그 길들은 예전 그대로이지? 신기했었어, 같이 걸으면서도 보는 것이 달랐잖아. 나는 골목길에서 장난치며 뛰노는 꼬맹이들을 보는데 당신은 높고 험한 암벽 위로 우뚝 솟은 바위 궁전을 보며 이야기했지. 당신이 골목 사이사이 하맘(공중목욕탕)에서 피어오르는 뿌연 연기를 보고 있을 때 나는 니캅(얼굴베일)을 쓰고 걸어가는 여인들을 보았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모스크의 미나렛(첨탑) 뒤에 걸린 달을 알지 못했어. 당신도 내가 아니었다면 건물 벽에 새겨진 하얀 아라베스크 무늬(기하학적 문양)를 오래 자세히 볼 일이 없었겠지. 하늘을 보는 여자와 땅을 보는 남자는 길모퉁이 집 창문 안 쪽에서 두 손을 꼭 맞잡고 기도를 했어. 추억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시간을 들여 천천히 되새겼어.

2016년 여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모르지. 그때 내 입은 잠겼고 다시 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만감이 서린 회한에 가슴이 미어졌어. 누가 죽었나, 왜 죽었나, 그 작은 아이들이 왜 죽어야 한단 말인가! 나 자신조차 원망스러웠어. 이 전쟁 통해

야외 학습이라니, 그것도 반군 묘지라니! 왜 후티 반군의 명령을 세차게 거부하지 못했던가. 사나흘 후면 끝날 예정이었던 서머스쿨은 결국 영원히 끝나지 않게 되었지. 아이들의 이름을 어찌 부를까. 그러나 내가 용기 내어 부르지 않는다면 이름들은 세상에서 영영 사라질지도 몰라.

스쿨버스는 덜컹거리며 사나 시내의 반군 묘지를 향해갔어. 아이들은 친구들과 붙어 앉아 재잘재잘 해맑은 표정으로 즐거워했지. 열한 살 아이들은 저보다 어린 여섯 살, 일곱 살 아이들을 챙겼어. 백 명 정도 아이들이 기념관 안에 줄지어 섰어. 현장 해설을 듣고 다 같이 구란을 암송했지. 여기저기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다가 광장에 모였어. 기념관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한 친구가 뛰어오며 소리쳤어. “기다려! 같이 사진 찍자.”

그때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머리 위를 날아갔어. 땅이 흔들리고 뜨거운 불빛이 번쩍했지. 나는 쓰러졌어. 까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방에 검붉은 불꽃이 일렁였어. 아이들의 조각난 몸과 피가 튀어 올랐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이 고막을 찢었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 옆구리가 선득선득했어. 끈끈한 피가 만져졌어. 찢어진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지. 공숨이 멈추길 기다렸어. 그 순간은 너무 길게 느껴졌지. 살아온 만큼의 숨을 다 쉬어버린 것 같았어.

폭격과 총격이 멈추었을 때 피가 흘러내리는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막으며 일어섰지. 아이들을 찾았어. 장난꾸러기 케람은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데 숨이 멎어 있었어. 압둘살람도, 마흐메드도, 살와도. 아이들이 피 흘리며 널브러진 광장에 서서 나는 울지 못했어. 아이들 몸을 부둥켜안고 울 시간이 없었어. 신음하며 살아 있는 아이들을 챙겨야 했어.

다친 아이들을 버스로 옮겼어. 경찰이나 소방관은 없었고 주민들이 도와줬지. 오십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버스에 싣고 임시로 세워진 야전 병원에 갔더니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 무차별 폭격이라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쨌다고! 모두 아픈 상황에서 사람들은 아이들 치료를 우선했어. 나는 치료받지 못했어. 나보다 훨씬 심각하게 다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거든. 옆구리에 폭탄 파편이 박히고 오른손이 뭉개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을 벗어났지. 형 집으로 가다 생각이 났어. 형은 총살당했잖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납치되어서. 온 세상이 검붉어 보였어. 온 세상이 아이들이 흘린 피로 물드는 것처럼 느껴졌어. 집에 도착해 죽음 같은 잠에 빠져들었지.

학교가 문 닫고 반군이 막무가내로 나를 징집하려 했을 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 나는 전쟁하고 싶지 않았어. 반군과 연합군 어느 쪽에도 속하고 싶지 않았어. 전쟁에서 죽고 싶지 않았어. 사나 시내 건물 벽에 내걸린 전사자의 영정 사진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그 안에는 열세 살 제자 아이 얼굴도 있었지. 당신과 부모님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나는 떠났을 거야. 살려면 떠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예멘에 남는다면 전쟁에 끌려가거나 징집과 징총 거부로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테니까.

가끔 후회했어, “길고 위험한 여행이 될 거야. 먼저 혼자 가”라는 당신 말을 따랐던 것을. 같이 왔어야 했어. 사나가 그렇게까지 위험해질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연락마저 끊길 줄 알았더라면. 전세계적으로 예멘인의 입국 봉쇄가 심해져 우리가 만날 일이 더 어려워질 줄 알았더라면.

파티마, 한국은 유엔과 난민지위협약을 맺은 나라야. 인권을 존중한다. ‘난민’이라는 신분을 받게 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일을 해서 돈을 모아 우리가 살 방을 구해 놓을게. 당신이 온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쿵광거리. 예전처럼 내가 요리를 하고, 평화로운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마카로니 그라탱과 당신이 좋아하는 프렌

치프라이를 먹자.

오른손은 주먹이 쥐어지지 않아. 그래도 감각이 살아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경우 왼손으로 식사하지 말라는 하람을 어겨도 되겠지만 불편해도 오른손으로 식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폭탄 파편이 들어앉은 옆구리는 수시로 푹푹 쑤셔. 그 아픔이 무고하게 죽어간 아이들을 생생히 기억하게 만들어. 기회가 되면 병원에 가보려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힘들 때마다 내 손에 머물던 당신 체온을 떠올려. 당신은 내 손을 잡고 기도했지.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괜찮을 거야. 나를 위로하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 괜찮아질 거야. 내일은 괜찮을 거야.

2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파티마,

당신과 연락이 두절된 후 예멘으로 돌아갈까 많이 망설였어. 가끔씩 숨이 멎는 느낌이 있어. 그럴 땐 얼굴을 들고 먼 데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시 숨을 쉬려고 하지. 오늘 새벽에는 사방에서 벽이 다가와 몸을 짓눌렀어. 폭격으로 얼굴이 으스러진 사람들이 코를 킁킁대며 잔해 더미를 뒤적거렸어. 꿈 깨어 가슴을 쓸어내리고 망연히 어둠을 바라보았지. 왼손을 쥐었다 폄다 했어. 전기가 찌릿찌릿 올라왔어. 역시나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는데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 “돌아오지 마. 아직은 아니야. 삶의 목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잖아. 예멘에 돌아오면 당신은 하찮은 병정이 될 뿐이야. 죽음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을게. 당신 만날 날을 기다리며 강한 의지로 살아갈게.

제주에 오기까지 이야기를 할게.

집을 떠나 처음 간 곳은 호데이다였어. 외부의 구호품 대부분이 그 항구를 통해 예멘으로 들어왔지. 내가 도착하고 한 달 뒤 거기도 사우디의 공습을 받았어. 폭격에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지. 물류 이동이 막혀 구호품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굶주림에 신음했어. 빼만 앙상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녔어.

아덴으로 갔어. 아덴은 후티 반군에 쫓겨 퇴각한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었어. 거기서 지부티로 가는 배를 탔지. 배는 아주 작아서 파도를 만날 때마다 흔들렸어. 튀어 오른 물결에 휘감겨 몸이 젖었어. 지부티와 예멘 남부 사이 바다가 좁아지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바람이 거셌어. 파도가 집어 삼킬 것처럼 일었지. 배 한가운데는 아이들이 웅송그리고 앉아 있었어. 자꾸 바닥으로 쓰러지는 몸을 일으키고 자세를 다잡으며 세 시간 동안 한 마디도 하지 않았지. 나는 카트(khat, 예멘인이 즐겨 씹는 식물의 잎. 환각효과가 있다.)를 씹었어. 카트 기운이 올라오자 지독한 욕지기를 견딜 수 있었어.

깜깜한 밤 지부티의 해변에 닿았지. 황량한 잿빛 해안에 붙어 몇 시간을 더 나아갔어. 가끔씩 어부들을 만났고 머리 위에 빛나는 비행기가 보이기도 했지. 지부티의 첫 항구 오보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

마르카지 난민촌에는 예멘인들이 많았어. 아이들도 많았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의 아이들이 생각났어. 다른 기억은 다 어디 가고 쓰러져 처참한 모습만 떠올랐어. 아이들은 씩씩했어. 그 모습을 보면 어찌 상상하겠어, 어린 나이에 가족과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난민촌에 왔다는 것을. 아이들과 어울리며 나도 씩씩해졌어. 이들은 얼마나 더 마르카지에 머물러야 할까. 소말리아 친구들처럼 마르카지에서 스무 살이 되고 서른 살이 되면 어쩌나.

마리암은 아홉 살 귀여운 여자아이였어. 늘 새침하게 웃으며 “헤이”하고 인사를 했지. 무

언가가 마음에 들면 말했어. “야, 브라.” 노르웨이어로 “그래, 좋아”라는 뜻이래. 마리암에게 몇 개 단어를 배웠는데 ‘탁(감사합니다)’밖에 기억나는 게 없네.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품는 것은 아이들의 재능 같아. 책 읽기, 영어와 노르웨이어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마리암은 말했어. “고향에 가고 싶어요. 어서 전쟁이 끝나면 좋겠어요. 만일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노르웨이로 가려고 준비해요.” 지금 나는 마르카지에서 노르웨이보다 먼 한국에 와있지만 그때 노르웨이가 너무 멀고 좁게 느껴졌어. 마리암은 노르웨이에 갔을까. 공부는 계속 할까. 학교에 다닐까.

난민촌 생활은 답답했어. 할 일이 별로 없었어. 의료 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죽어갔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한 달 만에 마르카지를 떠났어.

육로로 수단에 갔지. 우여곡절 끝에 말레이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 예멘인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는 흔치 않았지. 말레이시아는 난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내쫓지도 않았어. 유엔난민기구의 심사를 거쳐 난민신분증 비슷한 것을 받으면 노동이 가능했어. 체류 기간은 최장 3개월. 나는 돈을 내고 체류 비자를 네 번 연장해 일 년 동안 머물렀어.

말레이시아에서 후세인을 만났어. 그때 나이 스물아홉 동갑. 후세인은 나와 달리 마르고 키가 커. 이집트에 유학했었고 예멘관광청에서 일했어. 내전이 격화된 2015년 9월에 징집을 피해 국경을 넘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간신히 도착했는데 열흘 만에 출국 통보를 받았어. 이집트는 비자 발급까지 21일이 필요했다. 가능한 행선지는 도착비자를 주는 말레이시아뿐이었어.

후세인은 통번역 일을 하고 나는 식당에서 그릇을 닦았어. 예멘에서 고위 공무원, 의사, 교수, 언론인이었더라도 대부분 몸을 써서 일했어. 쉽지 않았어. 하루에 17시간씩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깐.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다시 출근했어. 폭탄 파편이 박힌 옆구리는 자꾸 쑤셨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 물에 젖은 채로 일해서 발은 염증으로 부어올랐지. 그렇게 한 달 일하고 고작 1200링깃(약 292달러)을 받았어. 불평할 수는 없었어. 그보다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천지였거든.

파티마, 아픈 것도 나는 양호한 편이었어. 룸메이트들 중에는 오른 팔을 잘라낸 친구도 있었어.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는 없었어. 말레이시아 의료비는 절반을 지원받아도 너무 비쌌어. 우리들은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사립 병원에 가야해서 더 돈이 많이 들었어. 다친 친구는 일도 못 하게 되었고 그동안 번 돈을 치료비에 다 쏟아 붓고도 돈이 모자랐어. 우리들은 사다카트(자발적 자선 의무)에 따라 그에게 생활비를 대주었어.

말레이시아 날씨는 몹시 덥다가 갑자기 추워졌어. 사막과 달리 끈적끈적해서 참기 어려웠어. 집 구하기, 돈 벌기 모두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어. 욕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경찰은 수시로 검문했어. 거리를 나가기 겁이 났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했어. 뒷길로 다녔고 사람들 뒤에서 소리 나지 않게 움직였어. 유령처럼 말야. 때로 몸이 있다는 사실이 저주스럽기도 했어. 미안해, 이런 약한 소리를 해서.

다시 체류 비자를 연장해야 했을 때 나는 말레이시아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어. 예멘인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제주도뿐이었어. 서로를 많이 의지하게 된 후세인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지. 후세인은 망설였어. 낯선 나라로 옮겨가 사는 일은 언제나 두려운 법이니까. 나는 후세인을 설득했어. “여기는 완전히 안전하지 않아. 어느 날 거리에서 죽을지도 몰라. 한국은 안전할거야. 말레이시아와 달리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나라이니까. 난민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잖아.”

결국 후세인이 마음을 돌렸지. 말레이시아를 떠나는 날 우리는 수하물 부칠 돈이 없어 예멘에서 가져온 짐 대부분을 버렸어. 우리가 탄 비행기에는 같은 처지의 예멘인이 서른 명 정도 더 있었어.

파티마, 난 지금도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금세라도 폭탄이 떨어지며 불꽃이 일 것 같아.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잔해에 깔릴 것만 같아. 한국 제주도에 도착한 날은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내렸어. 공항에서 비행기 소리를 들었어. 심장이 쿵 떨어졌어. 오월이었지.

3

기도하는 파티마,

어디서도 하루 다섯 번 기도는 빼놓지 않았어. 옆드릴 때마다 당신을 느껴. 당신이 내 어깨에 와서 속삭여. ‘난 무사해. 우리는 곧 만날 거야.’ 그런데 당신을 만질 수가 없네. 이 아픈 유령 놀이가 어서 끝났으면.

유월이 되자 슬픈 소식이 도착했어. 한국 정부가 예멘인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했어. 이미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은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한국에서 첫 한 달, 시간이 애벌레처럼 느리게 갔어.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 비행기에서 한국 사람들을 처음 보았어. 세련되고 교양 있고 지적으로 보였어. 이방인과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람들이라지. 한국 땅을 밟을 때 저절로 큰 숨이 뱉어졌어. 안전한 나라에 왔구나. 이제 안전해. 어떤 희망에 가슴이 두근거렸어. 인권을 존중받으리라. 일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리라.

제주 예멘인 공동체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고 예멘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숙소를 찾아갔어. 공항에서 멀지 않았고 바다와 가까웠어.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숙소 다 와서는 길이 복잡해서 헤맸어.

숙소에는 징집을 피해온 젊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어.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사람들과 짝을 지어 2인실 숙소에 다섯 명이 들어갔어. 마침 ‘신의 날’(금요일, 여럿이 기도한다.)이라서 함께 기도했지. 한국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이 찾아왔어. 신신당부를 하더라. “한국 사람들은 무슬림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다. 나쁜 행동은 좋은 행동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법이다. 우리 중 하나가 나쁜 짓을 하면 예멘인 모두가 나쁜 사람이 된다. 무슬림 전체가 욕을 먹는다. 늘 행동을 조심하라.”

난 후세인, 이스마일, 지야드 그리고 에브라힘과 한 방을 쓰게 됐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이스마일은 기자였어. 사명감 투철하고 용기가 대단해. 신문사가 문을 닫은 후에도 페이스북에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기사를 올렸어. 체포되어 구타와 전기 고문을 받았지. 살아나왔지만 고문후유증이 남아 허리가 좋지 않아. 이스마일은 늘 무언가를 쓰고 있어.

지야드는 바레인과 사우디를 오가며 무역을 했어. 바레인 국적의 아내는 임신을 했고 미국으로 갔어. 둘은 속절없이 헤어졌지. 바레인도 미국도 예멘인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 부부가 동거 가능한 나라가 세상에 한 군데도 없다니 믿기지 않아. 부부는 14시간 시차를 극복하고 영상 통화로 이야기를 나눴어. 지야드는 경찰서에 두 번 다녀왔어. 한 번은 휴대폰을 한 번은 지갑을 주웠거든. 어떻게 주인을 찾아줘야 할지 몰라서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를 찾아갔어.

에브라힘은 집에 폭탄이 떨어져서 부모를 그 자리에서 잃었어. 배와 오른쪽 눈을 다치고

몇 달 치료 끝에 겨우 살아났지. 배에서 가슴까지 찢어진 상처를 꿰매서 배꼽이 없어. 동생이 사우디에서 오기로 되어있었어. 동생이 도착하면 같이 서울 사는 형을 찾아가려고 했지. 형은 서울과 사나를 오가면서 무역업을 했어. 전쟁이 나자 사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았어. 서울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대. 난민 인정은 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 기간만 연장하고 있대.

지금 에브라힘은 상심해 있어. 예멘인의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고 출도제한(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함.) 명령이 떨어졌잖아. 동생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신도 형에게 가지 못하게 됐어. 폭격 때 다친 오른쪽 눈도 치료 받지 못해. 제주 병원에선 서울 소재 큰 병원에게서 치료를 받아야 실명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입국 금지, 출도 제한. 한국 정부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난민협약 가입국이라고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우리가 잘못을 했나? 우리가 위험한가? 무언가 잘못되어가는 걸까? 우리가 몰려와서 잠시 당황한 거겠지.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파티마, 그런 거겠지. 설마 우리를 전쟁터로 내쫓지는 않겠지.

라마단기간이라 낮에 먹지 않고 저녁만 빵으로 해결했어. 그런데도 방값 등 한국 물가가 비싸서 일주일 만에 우리는 가난해졌어. 일자리를 찾아볼 겸 주변을 돌아다녀봤어. 밤이 되면 바다 위로 배들이 늘어섰어. 여러 개의 환한 등을 달고 지평선에 나란히 떠 있었어. 등 은 밤새도록 불을 밝히고 바다를 비쳤지. 새벽 수산 시장으로 그 배들이 들어왔어. 은색 갈치들이 항구에 넘쳐났지.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인이 아니었어.

하루는 하모니카 소리를 들었어. 하천변 수산물 상점 앞에서였지. 두터운 잠바를 꺼입은 남자가 불고 있었어. 빈 생선 상자가 높다랗게 쌓인 트럭에 기대서서. 짙은 어둠이 흩어지고 있었어. 푸르스름한 기운이 은빛 하모니카 위에서 반짝거렸지. 하모니카 선율을 따라 내 마음도 푸르게 물들어갔어. 곡이 끝나 내가 박수를 치자 그가 미소를 지었어. 뭐라고 물어왔는데 내가 모르는 외국어였지.

4

바다를 좋아하는 파티마,

당신은 산악 지대 출신이라 바다를 동경한다고 했지. “바다는 아랍어를 한다네. 바다 바다 바다가”하는 옛날 노래를 좋아했지. 파도가 차곡차곡 쌓이는 풍경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다했지. 내가 바다에 머물렀음을 알면 당신은 부러워할까. 바다를 향한 당신의 그리움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를 경험을 나는 털어놔도 좋을까.

유월 들어 비가 자주 왔지. 눅눅하고 축축한 날들이 이어졌어.

유월 하순에 한국 정부가 예멘인들에게 직업을 소개해줬어. 후세인과 나는 제주도 서쪽 ‘한림’이라고 하는 어촌에 일자리를 구했어. 제주 시내보다 한적하고 공기가 좋은 곳이었어. 널따랗게 펼쳐진 땅에 파란 작물들이 자랐어. 바깥쪽은 바로 바다였어.

한두 주일 우리는 고기잡이 그물을 수선했어. 배를 고치고 페인트칠도 했지. 각종 장비 사용법을 배웠어. 능숙하게 일하지는 못했어. 망치질을 하다 손가락을 찔렸어. 생선 상자를 나르다 넘어졌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리기도 했어. 서로의 말을 모르니 의사소통은 눈빛과 몸짓으로 했지. 같이 일하는 한국인들로부터 몇 가지 한국말을 익혔어. 일로 와. 씨팔 놓아. 빨리 해.

한국인 일꾼 3명과 같은 숙소를 썼어. 그 사람들은 밤마다 술을 마셨어. 술에 취해 “씨팔”하고 소리를 질렀어. 자다가 뒤척이면 무섭게 으르렁대고 발로 찼어.

그러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지. 바다에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오르락내리락 했어. 후세인은 뱃멀미가 심해 열흘 내내 앓았어. 선실 구석에 처박혀 핏기 없는 얼굴로 구토하고 신음했지. 어서 빨리 육지에 닿기만을 바랐어. 배에서 내리면 다시는 배를 타지 않을 작정이었어.

나도 속이 울렁거렸지만 후세인 뒤편까지 일하려고 이를 악물었어. 해뜨기 전에 일어나 그물을 내렸어. 하루 종일 끊임없이 그물을 끌어올렸지. 해가 지면 바로 잠을 잤어. 그물을 당길 때는 힘도 많이 들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스무 시간씩 그물을 당기는 날에는 양손이 다 굳어 움직이지 않았어. 어찌 된 까닭인지 옆구리와 오른손 통증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

그렇게 열흘을 바다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밤, 하늘에 보름달이 떴어. 우러러봤어. 달은 당신이 있는 사막을 건너왔을까. 당신도 저 달을 보았겠지. 그때 후세인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어. 술 취한 한국인들이 후세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지. 그들에게는 일 하지 않고 선실에 누워 끄꿍대기만 하는 후세인이 눈엣가시였거든. 후세인은 몸을 동글게 말았어. 발길질에 이리저리 굴러다녔어. 내가 황급히 후세인 곁으로 간 순간, 후세인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어. “나 당장 내릴 거야!”

그리고 순식간이었어. 누군가 생선 상자를 들어 후세인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쳤어. 내가 사정없이 달려들자 그들은 나도 내동댕이쳤어. 구멍조끼를 입히더니 후세인을 바다에 던져 버렸어. “내려 새까. 죽든지 말든지. 너 같은 건 죽어도 아무도 몰라.” 소릴 지르고 침을 튜 뱉더니 선내로 들어가 버렸어.

“야!” 나는 오열했어. 나도 모르게 한국어가 튀어나왔어. “씨팔 놈아.” 난간을 붙잡고 일어서어. 일렁이는 물결을 타고 버둥대는 후세인이 보였지. “후세인, 밧줄을 던질게.” 순간 밧줄이 보이지 않았어. 허둥대며 밧줄을 찾는 사이 후세인은 멀어져갔어.

백 미터쯤 떨어진 곳에 다른 배가 있었지. 후세인은 그쪽을 향해 갔어. 지켜보는데 진땀이 주르르 흐르더라. 후세인, 살아야 해. 우리 살려고 전쟁터를 떠나왔잖아. 살려고 한국에 왔잖아. 포기하지 마. 나는 알라에게 기도했어. 이 시련을 끝내주세요. 후세인을 살려주세요. 파도가 후세인의 모습을 가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어.

눈 깜짝할 사이 후세인이 보이지 않았어. 아아. 무능력한 자신을 원망했어. 다만 바다에게 빌었어. 검붉은 바다, 막막한 바다, 무심한 바다에게. 구해주세요. 감관에 덩그마니 주저앉아 까만 어둠을 바라보았어. 한참을 쳐다보았어. 푸른 달빛이 느껴지더라. 파도를 타고 당신의 노랫소리가 출렁대더라. “바다는 아랍어를 한다네. 바다 바다 바다가.”

물에 왔더니 후세인이 있었어. 우리는 끌어안고 한동안 서로의 젖은 등을 쓸어내렸어.

후세인이 말했어. “아픈 걸 어떡하란 말야. 안 아픈 게 마음대로 되냐고! 그 인종차별주의자들 보기도 싫어. 나를 구해준 다른 배 사람들 아니었다면 당장 한국을 떠났어.”

후세인과 나는 고기잡이 일을 그만두고 한림을 떠났어.

5

나의 달님 파티마,

한국은 추석 명절이야. 가족을 만나고 조상을 기억하는 날이래.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

인터넷에 올라온 예멘 풍경을 우두커니 바라보았어. 거칠고 메마른 땅, 폭격으로 무너진 집들, 오염된 물을 마시고 콜레라에 걸려 죽어 가는 사람들……. 나는 물이라도 마음껏 마시지만 당신과 부모님은 어떻게 먹고 지내는지.

팔월은 뜨거웠어. 후세인과 나는 한림을 떠나 서귀포라는 남쪽 도시에 가서 일자리를 찾

있어. 공사 중인 현장, 문 열린 식당, 짐 싣는 트럭 등 사람이 보이면 무작정 다가가 일을 구한다고 의사 표시했어. 휴대폰에 적힌 한글 문장을 보여주고 손짓 발짓으로 말했지. “돈은 적게 줘도 좋다. 꼭 일을 하고 싶다. 시켜만 달라.”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 말이 통하지 않아 문제였을까. 두 주일 동안 아침부터 해 질 녘까지 시내를 살살이 돌아다녔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

일도 못 구하고 녹초가 되어 자리에 누우면 어찌나 서러운지. 마실 물조차 없는 전쟁터에 있는 당신과 부모님을 생각하면 말이야. 나야 고생도 아니지, 이쯤은 고생도 아니야. 당신과 부모님이 올 때를 준비하자. 그렇게 힘을 냈어. 다음날 또 일자리를 찾아다녔어.

삼주 만에 돼지고기 파는 식당을 찾아냈지. 후세인이 반대했어. “우리한테 돼지고기 먹으라고 하면 어떡해.” 폐북에서 예멘 여성이 올린 글을 읽었거든. 한국 사람들이 허잡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종종 강요했대. 한국에 왔으니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며.

“먹지 않으면 되잖아.” 내가 대답했어. 그 고생을 하며 찾은 일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사장에게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했어. 사장은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도 좋지만 특별히 다른 반찬을 마련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 괜찮았어.

문제는 기도 시간이었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손님이 많아.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빠.” 사장이 말했어. 휴대폰 앱으로 기도 시간을 체크했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지. “이 때는 기도를 해야 해.” 사장이 인상을 찌푸렸어. “가장 바쁜 시간이라 기도 안 돼.”

후세인은 등을 돌렸어. “기도를 못하면서까지 꼭 여기서 일해야 해? 살랏(하루 다섯 번 기도의무)을 지켜야지.” 다시 후세인을 설득했어. “기도는 몰아서 하자. 여긴 한국이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여기 머무를 수밖에 없어. 한국 생활방식과 조화를 이룰 방도를 찾아야지. 계속 부딪칠 문제야. 일단 일 하자. 일하면서 방도를 찾아보자.”

내가 사장에게 일을 달라고 하자 후세인 얼굴이 붉그락푸르락해졌어. 그런 후세인을 쳐다보며 사장이 물었어. “기도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5분.” “그럼 괜찮아. 여기서 일해. 기도는 저 뒷방에서 해.”

후세인이 내켜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그 식당에서도 오래 일하지는 못했어. 우리는 불판을 나르고 서빙을 했지. 서둘렀어. 후세인은 팔을 철판에 데었어. 나는 철판을 놓쳤어. 눈치껏 노력했지만 사장은 우리에게 불만이 많아 보였어. 한국 문화를 몰라 저지른 실수도 있었겠지. 아무려나 말이 통했더라면 서로 바라는 바를 알았을 테고, 상황이 자꾸 꼬이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 사소한 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 점점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었어. 한 달 만에 식당 사장이 말했어. “미안해. 그런데 안 되겠다. 나가줘.”

지금 우리는 제주도의 동쪽에 자리한 ‘조천’에 머물러. 지야드가 불러줬어. 열 명 정도 예멘인이 함께 생활해. 숙소 주인은 키가 작고 통통한 아저씨인데 한국 악기 ‘장구’ 연주가였어. 숙소는 장구 연습실이었대. 다른 사업을 구상중이라 지금은 연습하지 않으니 마음껏 사용하라며 우리들에게 내어줬어. 우리는 그를 ‘그러쵸’라고 불러. 자주 ‘그러쵸’라고 말하거든. 안다 또는 이해한다는 뜻 같아.

밤에 숙소 가까운 ‘오름’에 다녀왔어. 오름은 언덕 같은 것을 말해. 함께 달을 보는 행사가 열렸지. 사람들이 북적거렸어. 폭죽을 터트렸어. 동네 사람들이 친절하게 말 붙이고 도시락을 건네줬어. 달이 하맘(공중목욕탕)만큼 컸어. 당신도 달을 보았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달을 본다는 사실이 가슴 설레어. 달만은 그대로 있어주면 좋겠어. 전쟁이, 인간이, 달만은 빼앗아가지 않으면 좋겠어.

날씨가 선선해졌더라. 길고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갔어. 겉옷을 하나 더 입었어.

6

나의 와르다 파티마,

그러쥬의 연습실에 처음 들어설 때를 기억해. 왁자지껄 우리말 억양을 듣고 울컥했지. 마음대로 말해도 다 알아듣는 사람이 열 명이나 됐어. 신이 나서 며칠 동안 쉬지도 않고 지켰었어. 예멘 소식을 주고받고 일 경험을 나누고 이런저런 불만을 털어놓았지.

연습실에서 여러 한국 친구들과도 어울렸어. 그러쥬는 유쾌한 사람이야. 장구치고 노래하고 뒤통거리며 춤을 춰. 한국 사람들이 무슬림을 무서워한다던데요, 하니 자신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웃었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랑은 종교를 초월한대. 예수도 태어나자마자 난민으로 이집트에 갔었다고 말하며 웅크렸어.

그러쥬의 친구들이 폐북을 보고 찾아왔어. 나이도, 얼굴도, 성격도 다양했어. 그들은 두 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와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건네며 말했어. “동정이 아니다. 너희의 사다카트(자선 의무)처럼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는 인류 공동체로서 우리의 의무를 하는 것뿐이다.” 가져온 것들 중에는 안남미, 할랄 마크가 찍힌 커피, 피타빵 비슷한 밀 또띠아도 있었어. 예멘에서 살 때 시리아, 소말리아 난민들에게 무심했던 나를 반성했어. 이제 만나면 다르게 대할 것 같아.

저녁에는 한국어를 배웠어. 한국어는 어렵지만 선생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배우니 재밌어. 선생님은 그러쥬의 외동딸이야. 내년엔 대학에 간대. 한국 문화에 대해 참참이 이야기해줬어. 한국에서 ‘예뻐요’ 같은 말은 칭찬이라도 실례가 될 수 있대. 카트(환각효과가 있는 식물의 잎)는 한국에서 마약으로 취급돼 씹으면 법에 걸린대.

우리 문화에 대해 물어오기도 했어. 니캅(히잡+얼굴베일)은 종교와 상관없이 근대 이후 사우디에서 건너온 관습이라고 알려줬어. 거울 앞에 선 당신 목소리가 들려. “니캅은 눈썹을 덮어야 예뻐.” 한국 사람들도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데 미세먼지나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야. 왈리(보호자)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어. 지금도 여자들이 뭘 하려면 반드시 왈리가 있어야 한다, 가족 중 남자라면 어린 아들도 상관없다 대답했지. 선생님의 어리둥절한 표정 위로 당신 얼굴이 겹쳐졌어. 여자를 옥죄는 풍습이라며 성토했지.

가끔 우리들이 잠든 밤에 연습실 창으로 돌이 날아왔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가 깨지기도 했어. 누가 던졌을까? 왜? 우리가 예멘인이어서? 다치길 바랐을까? 돌이 또 날아올까 두려워.

슬픈 소식이 있어. 지야드가 카페 일을 그만뒀어. 대학생들과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거든. 별 내용 아니었어. 학생들의 질문에 “전쟁 이후 자신이 변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다”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런데 예멘인이 일하기 때문에 가게를 보이콧하는 한국 사람들이 생겨났어. 그것도 많이. 사장은 지야드에게 제안했지. 손님들 눈을 피해 주방에서 일하면 어떠냐. 지야드는 숨어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 가게에 피해주기도 싫었고. 결국 일자리를 잃었어.

기쁜 소식도 있어. 그러쥬가 할랄 음식점을 열었고 후세인이 거기 셰프가 되었어. 당신은 요리를 잘 하는 남자가 좋다고 했지. 그럼 후세인을 보여주지 말아야겠어. 후세인이 만든 후무스(병아리콩요리)는 정말 고소하고 부드러워 당신도 반할 테니까. 이집트 유학 시절 요리를 좋아하게 됐대. 어느 날 후세인이 후무스, 아그다 치킨(닭볶음요리), 피타빵(둥글넓적한 밀가루 발효빵)을 만들어 상을 차렸어. 모두 둘러앉았는데 누군가 흘쩍었어. 그 친구 고

등학교 때 유학 나왔다가 전쟁이 나서 팔 년째 돌아가지 못했어. 음식 앞에서 자기가 예멘 출신임을 오랜만에 느꼈대. 고향에 온 기분이라며 고개를 떨궜어. 그 뒤 후세인은 자주 요리했어. 마카로니 그라탱과 프렌치프라이도 만들어 줬어.

그러쥬는 우리와 지내며 알게 됐지, 제주도에 등록된 외국인 이만명 중 상당수가 농장이거나 양식장에서 일하는 무슬림인데 이들이 갈만한 할랄 음식점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한국에서는 많은 음식에 돼지고기를 넣기 때문에 무슬림은 마음 놓고 먹지 못해. 그래서 만든 제주 최초의 할랄 음식점 이름은 ‘와르다’(꽃)야. 와르다는 제주도에 있는 우리의 고국이고 고향이야. 어디 한 군데 언제라도 찾아가면 반겨주는 예멘 사람들과 음식이 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마음 든든한지 몰라.

와르다의 일을 도우면서 난민 심사 결과가 나오는 12월까지 그러쥬의 연습실에 머물렀어. 수많은 예멘인이 오고갔어. 취업되어 떠나고 일자리에서 쫓겨나면 다시 찾아오기도 했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떠돌아야 할 텐데 떠나는 슬픔은 적응되지 않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라서 그럴까. 한국친구들이 말했어. 삶이 낯설고 슬픈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도 스스로가 고향을 떠난 이방인처럼 느껴진대. 떠돌아다니며 사는 삶의 슬픔을 안다더라. 연습실을 떠날 때 예멘인들은 그동안 배운 한국말로 인사했어.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쥬와 한국친구들의 환대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연습실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있어. 액자 안에는 한글로 적혀 있지. “당신을 보았습니다.” 뜻을 물었더니 그러쥬가 말했어. “승려였던 시인이 쓴 한국시의 제목이다. 한국도 한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독립 당시 한국인도 일본, 중국, 연해주 등에서 난민으로 살았다. 독립한 뒤에는 내전이 일어나 고향을 잃고 떠돌았다. 우리는 난민으로 사는 심정을 안다. 진짜 어렵고 힘들 것이다. 내가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자주 볼 수 있게 걸어두었다.”

7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파티마,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면 어쩌지.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 죽더라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약한 소리하는 나를 용서해 줘. 당신이 늘 말하는 대로 삶의 목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지만,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가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불안해질 뿐이야. 어떤 시련도 헤치고 나가려는 이 다짐과 의지가 무슨 소용이지? 당신이 없다면,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난민심사를 받았어. 난민면접 전날에는 그러쥬의 미용사 친구가 와서 머리를 깔끔하게 깎아주었어. 무척 긴장했던 면접은 끝났어. 한 마디로 속상해. 통역사의 표준식 아랍어는 우리들의 예멘식 아랍어와 소통되지 않았어. 통역사는 자꾸 돈 얘기를 했어.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오지 않았느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 내 말과 뜻이 제대로 기록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어.

난민신청자 484명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어. 이스마일과 또 한 기자만이. 56명은 단순 불인정,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어. 내전이나 강제 징집을 피하는 것은 난민 사유가 아니래. 고국으로 돌아가면 전쟁에 끌려가서 죽는데 이것이 박해가 아니라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기 수도 없어. 우리들은 몹시 실망했어.

지야드는 ‘단순 불인정’을 받았어. 제주도를 나가지 못하고 3개월마다 체류를 갱신해야만 해. 지야드가 부인의 국적국인 바레인이나 아들의 국적국인 미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면 되니까 그럴대. 바레인도 미국도 예멘인을 받아주지 않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지

야드네는 아내가 학생비자를 받아 같이 살 계획을 세웠었어. 제주에는 아랍권 학생을 받는 대학이 없어 아랍권 학생을 수용하는 대학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지. 그런데 지야드 말이 제주에 묶어버렸어.

지야드 아내가 찾아왔었어, 미국에서 혼자 낳은 아기를 데리고. 지야드는 아들을 처음 보았지. 신기해서 어쩔 줄 몰랐어. 꿈지락거리는 아기를 끌어안고 문대고 잠시도 놓지 않았지. 아기가 귀여워서 자꾸 자기 입술을 깨물게 된다. 입술에 피멍이 들었어. 허용된 한국 체류 날짜를 꼭 채우고 엄마와 아기는 떠나가야 했어. 아빠를 혼자 남겨두고 말야. 엄마, 아빠와 아기가 같이 사는 것. 그게 우리 예멘인들에게는 그렇게 이루기 힘든 꿈이었어.

파티마, 나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어. 단순노무 취업이 가능하고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해. 인도적 체류라도 가족결합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지만 한국은 아직 아니야. 함께 살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비탄하지만 좌절하지는 않아. 이의 신청을 할 테야.

이제 제주를 떠나. 전라남도 목포에 있다는 대기업 조선소로 가. 이미 백 명에 가까운 예멘인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어. 전라남도는 어떤 곳일까. 거기에도 돌을 던지는 사람, 바다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을까. 일은 할 만한가. 일하는 환경은 안전할까.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어수선해. 꿈과 미래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당신 말이 오늘 쓸쓸해.

공항으로 가는 길, 깜빡 졸다가 차가 급회전하는 바람에 눈을 번쩍 떴어. 뒤돌아보았어. 도로 한가운데 피 칠갑을 하고 죽어 널브러진 동물의 몸뚱이가 보였어. 검붉은 내장이 찢겨 길바닥에 흩어져있었어. 차들이 흥측하게 으스스러진 몸뚱이를 피해갔어. 누가 치울까. 그 순간 무서워졌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은 아니겠지, 파티마. ✍